

# “꿀벌 집단 실종’ 회복기에 기약없는 더위”… 양봉농가, 울상

“사람도 수명이 깎이는 더위인데 꿀벌은 오죽할까요.”

폭염특보가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9일 오전 광주 북구 장등동 한 양봉장.

지역에서 7년째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는 정시명(64)씨의 하루 일과 시작은 어느덧 온도계를 들고 벌통을 찾아다니는 것으로 끝어졌다.

태양이 중천에 이르기 한참 전인 오전 9시였지만 벌통 내부 온도는 사람의 체온을 벌써 넘어선 36.8도. 꿀벌들은 벌통 내부 온도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입구에 모여들어 씹어 날개를 퍼덕이며 바깥 공기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방봉복을 입고 본격적인 벌통 검사에 나선 정씨는 통마다 수 장씩 설치된 소비장을 하나하나 들어올리며 꿀벌들의 행동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꿀벌들이 더위라든 먹은 듯 굵은 행동들을 보이자 측은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나 더위에 집단으로 폐사했을까, 사료로 급여하는 설탕물과 떡밥은 잘 먹고 있을까. 날씨에서 비롯된 양봉장 걱정이 오늘도 이어지면서 정씨의 수심이 깊다.

꿀 채집기였던 무밀기마다 보이던 알은 올해 꿀이 나지 않는 무밀기에 접어들면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무밀기와 때 이른 폭염이 겹치면서 여왕벌의 산란량이 뚝 떨어진 탓이다.

여왕벌이 자라고 있는 왕대를 들여보이면서는 한숨을 내뿜어 쉬기도 했다. 현재 여왕벌 14마리가 부화를 앞두고 있지만 폭염 속에서는 온전한 부화가 미지수다.

여왕벌의 온전한 부화와 양육은 곧 벌통의 군세-양봉장의 규모 확장과 벌꿀 생산량 증대로 이어지는 만큼 양봉업계가 긴 폭염을 괴로워하는 이유와 직결된다.



광주지역에 폭염특보가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9일 오전 광주 북구 장등동에서 양봉업자 정시명(64)씨가 벌통을 검사하며 더위에 지친 벌들을 관리하고 있다. /뉴스시스

## 벌통 군세 회복기 접어들던 중 여왕벌 산란량 ‘뚝’ “긴 무밀기, 이른 무더위 속 양봉업 체계적 지원”

정씨는 기약없이 이어질거라 예고된 여름 폭염에 지난 2021년부터 2년여 동안 이어진 꿀벌 집단 실종 사태를 떠올렸다. 한때 300여 통 규모까지 성장했던 정씨의 양봉장은 꿀벌 집단 실종 사태를 겪고난 뒤 200여 통 규모까지 줄었다.

최근에 들어서야 회복기를 맞으면서 다시 250여통 규모까지 늘어났지만 예고없이 다가온 장기간의 폭염에 어찌할 방도

가 없다.

양봉 또한 축산의 한 분야지만 낮은 인지도로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무밀기인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설탕 등 사료로 버텨야하는데, 때 이른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이 여타 축산업 대비 적다는 것이다.

정씨는 “소나 돼지 등을 기르는 축사는

냉방과 관련해 시설을 개선할 경우 큰 돈이 들지만 노지 양봉은 그렇지 않다. 차량과 같은 가림막을 설치해주거나 벌통별로 단열재를 설치해주는 정도에도 충분하다고 여기는 양봉업자들이 많은 것이다. 농가가 원한다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양봉업계는 긴 무밀기 동안 설탕 등 사료로만 버틴다. 무밀기 동안 극심한 기후변화로 뒤따르고 있는 만큼 변동하는 사료값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지원책 연구·논의도 뒤따라 주길 바란다”고 토론했다. /오권철 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연이틀 폭염 긴급 대응에 나섰다. 강 시장은 이례적인 장마 초기 종료에 따른 폭염 장기화에 따라 살수차 2배 확대, 그늘막 추가 설치, 야외 근로자 보호조치 이행 등 폭염대책 추가 방안을 발표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하라”고 지시했다.

강기정 시장은 10일 오전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폭염대응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폭염대응 대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시 16개 관계부서와 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석, 폭염대응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폭염대응 점검 회의에서는 관계부서와 자치구에 온열질환 예방체계 강화, 폭염 취약계층인 고령농업인·독거노인·공사장 야외근로자 등에 대한 꼼꼼한 대책 추진

## 강기정 시장, “폭염 대응 시민안전 최우선하라”

폭염대응 점검회의 주재 ‘폭염 종합대책 추가 강화 방안’ 발표 열섬현상 완화 살수차 2배 투입… 하루 평균 10대→20대 확대 그늘막 131개소 추가 설치… 건설사에 근로자보호 서한문 발송

과 적극적인 대신민 홍보를 주문했다.

강 시장은 점검회의를 마친 뒤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야외근로자 폭염 보호조치 이행 상황을 살폈다. 앞서 전날인 9일에는 도시철도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에 취약한 야외근로자 폭염 대비 근로환경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광주시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월 수립한 ‘폭염 종합대책’과 함께 ‘폭염 대응체계 추가 강화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폭염 대응체계 추가 강화 방안은 생활환경 개선, 폭염 민감계층 집중 보호, 대신민 홍보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도심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살수차’를 당초 계획 대비 2배 확대 투입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요 간선도로 20개 구간 노선 226km를 대상으로, 하루 평균 약 20대의 살수차량을 투입해 살수작업을 벌인다. 당초 계획에는 하루 평균 약 10대의 살수차량을 운행하기로 했

으나 2배 확대한 것이다.

폭염 취약 분야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지역 건설업체 약 2500곳에 ‘2시간 작업, 20분 휴식’, ‘충분한 물 마시기’ 등 폭염 행동수칙을 담은 시장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앞서 시 발주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휴식시간 부여 여부와 그늘막 등 휴게환경 조성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폭염 민감대상자인 독거노인, 폭박주민, 기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보호 활동을 추진하는 등 보호대책을 강화한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쿨 타올, 쿨 마스크, 부채 등 보냉물품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염은 사전 대비와 올바른 행동 요령 숙지가 중요한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전민규 기자

## 수상한 문자 URL 절대 누르면 안돼요

행안부, 소비자쿠폰 지급 앞두고 스미싱 주의 안내

이달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자쿠폰’ 지급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민생회복 소비자쿠폰 지급을 앞두고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의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소비쿠폰은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지급 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등의 내용으로 정부나 카드사, 은행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걸도록 유도를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

사전 알림 서비스인 ‘국민비서’, 카드사, 은행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링크는 함부로 눌러서는 안 된다.

정부와 금융기관도 소비자쿠폰과 관련해 이러한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행안부는 “따라서 공식 문자가 아닌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며 “문자를 열람했다면 문자 내 URL을 절대 누르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URL을 눌러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스미싱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을 참고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자쿠폰 지급 일주일 전인 오는 14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해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 피해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뉴스시스

## 광주시,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집중 검사

9월까지 양궁대회 시설·대형건물·노인복지시설 등 183곳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여름철 레지오넬라균 감염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9월까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환경검사’를 집중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레지오넬라균 조기 차단과 함께 오는 9월 개최되는 ‘광주2025현대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관련 시설 사전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검사 대상은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경기장과 숙박시설 등 관련 시설 16개소를 포함해 종합병원, 노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고위험시설, 백화점·대형건물·목욕탕 등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등으로 총 183개소다.

레지오넬라균은 레지오넬라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제3급 급성 호흡기감염병으로, 오염된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작은 물방울 입자 형태로 공기 중으로 나와 호흡기를 통해 흡입돼 폐렴과 독감을 일으킨다. 대형 건물의 냉각탑·급수시설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냉방기 사용이 급증하는 하절기에 환자 발생이 집중된다.

건강한 사람은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더라도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다가

특별한 치료 없이 일주일 내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50세 이상·만성질환자·면역저하자 등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의 경우 감염 후 숨가쁨 증상과 함께 호흡 곤란 등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집중검사는 보건소에서 다중이용시설 대상 환경검체를 채취하고,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해당 시설에 청소·소독을 안내하고 최소 48시간 경과 후 재검사를 통해 조치 효과를 확인할 방침이다.

강윤선 공공보건의료과장은 “레지오넬라균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비교적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감염병이지만, 고위험군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다”며 “각 시설 관리자들은 냉각탑과 급수시설의 주기적인 청소와 소독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레지오넬라 오염도 조사 결과, 총 643건 중 58건(9.0%)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 주요 발생 시설은 냉각탑(20.8%), 온수공급시설(11.9%) 등이었다. /송현근 기자

#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